

515 뜻없이 무를 품는



Capo=3rd
J. Hay, 1891
조음: 페르제 J=100
LANGLOFFAN: 7.6.7.6.D.
from D. Evans' Hymnus A Tripartit, 1865
Welsh Hymn Melody

1. 뜻 없이 무를 품는
2. 약 한 지 이 무를 품는

꿈 시 는 그 강 복 자 타 르 게
고 강 한 자 타 르 게

운 주 명 한 자 에 정 말 게 사 함 는 이 는 그 주 생 활 의 뜻 이 니 라

우 해 리 의 아 래 면 밤 치 는 아 곳 주 독 수 기 리 기 달 게 듯 서 이

주 그 뜻 팔 로 이 미 됩 아 지 주 시 어 다 외 치 의 가 가 사 나 나 니 아 멘

회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1. 정 의 가 강 세 를 물 뿌 리 며 평 지 가 온 들 수 난 불 처 럼
2. 는 물 가 세 를 물 뿌 리 며 평 지 가 온 들 수 난 불 처 럼

사 랑 이 라 햇 - 빛 처 앞 에 서 하 너 님 주 신 - 생 명 보듬 린 어 다

회 년 을 향 해 함 께 가 는 길 주 의 약 속 곧 게 믿 으 며 일 곱

아 번 씩 일 곱 번 넘 어 겨 도 약 속 을 곧 게 믿 으 며

시편 81, 82편

81편

1 우리의 힘이신 하느님께 즐거운 노래를 불러 드리라. ○ 야곱의 하느님께 환성을 올리어라.
 2 풍악을 울리고 소고를 쳐라. 거문고를 울리며, ○ 수금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뜯어라.
 3 초하룻날이다, 나팔을 불어라. ○ 대보름날이다, 나팔을 불어라.
 4 이는 이스라엘이 지킬 규정ियो ○ 야곱의 하느님께서 주신 법이다.
 5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 ○ 요셉 가문에 내리신 훈령이다.
 6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던 소리를 들었으니, ○ “내가 너희 등에서 짐을 벗겨 주었고 광주리를 내던지게 하였다.
 7 너희가 곤경에 빠져 부르짖을 때 살려 주었고: 폭풍 속에 숨어 너희에게 대답하였으며 ○ 므리바 샘터에서 너희를 떠보기도 하였도다.”
 8 “백성들아, 내가 타이르는 말을 들어라. ○ 이스라엘아, 정녕 나의 말을 들어라.
 9 너희는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 이교도의 신을 예배하지 말지니라.
 10 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나 야훼 하느님이다. ○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 주리라.”
 11 “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 이스라엘은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12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마음을 굳은 대로 버려 두어 ○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였다.”
 13 “내 백성들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 이스라엘아, 나의 뜻을 따라 걸어다오.

14 그리하면 당장 너희 원수들을 쳐부수리라. ○ 나 당장 너희 압제자들에게 손을 대리라.
 15 주님의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아침하게 될 것이니 ○ 그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으리라.
 16 그러나 내 백성은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고 ○ 바위에서 따낸 꿀로 배불리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82편

1. 하느님께서서 군왕들을 모으시고 ○ 그 가운데 서시어 재판하신다.
 2. “언제까지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려는가? ○ 언제까지 악인에게 편들려는가?
 3.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 주고 ○ 없는 이와 구차한 이들의 권리를 찾아 주며,
 4.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풀어 주어라. ○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5. “그러나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여 ○ 어둠 속을 헤매고만 있으니 세상은 뿌리째 흔들린다.
 6. 나의 선고를 들어라. 너희가 비록 신이라 말하고 ○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지만,
 7. 너희는 보통 인간처럼 죽겠고 ○ 여느 군주처럼 넘어지리라.”
 8. 하느님이여, 일어나시어 온 세상을 재판하소서. ○ 만백성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 요한복음 8:12-20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